

미얀마 고대 뽀 왕국의 불교미술과 인도의 영향

강 희 정*

요약

미얀마 중부지방에 있었던 고대왕국 뽀(Pyu)는 늦어도 4세기경부터 불교미술을 만들었다. 이는 같은 시기 대륙부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서 힌두교 미술이 중심인 것과 대조적이다. 일반적으로 뽀 왕국의 불교미술은 남인도 안드라 지방과 스리랑카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날렵한 불신과 착의법, 옷주름 처리방식이 달라서 중인도 사르나트와 날란다 불교미술의 영향으로 보인다. 중부 미얀마는 육로를 통한 방글라데시 방면에서의 이동과 인도의 항구 탐라립티(Tamralipti)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에야와디(Irawady)강을 따라 북상하는 루트가 뚫려있었다. 스리 크세트라(Śrī Kṣetra)에서 발견된 뽀족의 불교미술은 처음에 굽타시대 인도 중부지방 미술의 영향을 받았고, 점차 남인도 및 스리랑카 미술도 수용했다. 미얀마 중부에 위치한 뽀 왕국은 인도 중요 지역에서 전해진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자신들의 고유한 미의식을 반영하여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미술을 만들었다.

주제어: 미얀마, 뽀족, 스리 크세트라, 안드라, 스리랑카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교수, esvara@sogang.ac.kr

I. 서언

부산시립박물관은 2019년 12월 미얀마 종교문화부의 협조를 받아 <미얀마의 불교미술>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 전시는 미얀마의 이전 수도였던 양곤 국립박물관과 현재 수도인 네피도 국립박물관을 비롯하여 바간 고고학박물관, 스리 크세트라 고고학박물관 등에서 소장유물을 대여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미얀마의 문화를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불교문화재가 미얀마 국외에서 전시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에 이은 두 번째 전시이다. 미얀마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버마족이 오랜 시간 동안 불교 신앙을 고수했기 때문에 불교문화가 융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 역사와 문화 연구가 미진하여 그 진면목을 알기 어려운 현실이다.

미얀마가 19세기말부터 영국 식민지였으므로 미얀마의 불교미술과 역사에 관한 근대적 연구도 영국인들이 주도했다. 인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국은 미얀마 각지를 연결하는 철도 부설 공사를 시작했다. 1870년대 초에 양곤(Yangon)에서 프롬(Prome)에 이르는 철로 부설 공사를 하던 중 영국 식민당국은 미얀마의 고대왕국으로 알려진 뽀(Pyu)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오래된 명문을 발견했다(Luce 1985). 이 명문은 뽀족 문화와 관련되는 이른 시기의 문자기록으로써 이때의 발견은 뽀 왕국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최초의 순간이었다. 그 뒤를 이어 1897년에는 마웅간(Maungan) 마을에서 2장의 금판이 발견되었는데, 그 내용은 팔리어로 이뤄진 구문이고, 표기는 뽀 문자를 사용한 것이었다. 이로써 미얀마의 고대 문자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기 시작했다.¹⁾ 같은 지역의 보보지(Bawbawgyi) 스투파에서

1) 이 유물은 현재 영국 박물관에 소장되었고 명문은 에피그라피아 인디카(*Epigraphia Indica*)에 수록됐다. (G. H. Luce 1985, 63-64). 영국은 이미 인도에서 고대 문자와 문명, 고고학적 발굴을 확대하고 있었고, 이 경험이 미얀마에서의 고대학 연구를 수월하게 만들었다.

도 이와 비슷하게 쁘 글자로 쓰인 팔리어 명문이 발견되어 이를 해독한 루이 피노(Louis Finot)의 글이 『아시아 저널 *Journal Asiatique*』에 수록되었다. 이처럼 고대 문자 자료의 연이은 발견으로 인해 영국은 인도에 이어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계속하여 발굴을 시도했고, 영국의 발굴은 쁘 왕국을 포함하여 미얀마 고대 문화와 미술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자 자료의 발견과 해독만으로는 쁘 왕국의 문화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더욱이 쁘는 현재 미얀마의 주류에 해당하는 버마족의 역사로 계승되지 않았고, 쁘족의 불교미술은 버마족의 미술과 사뭇 다른 특징을 보인다. 쁘족의 미술이 인도의 영향을 강하게 보여주는 것에 비해 바간시대부터 본격화되는 버마족의 불교미술은 훨씬 정형화되어있다. 버마족의 미술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복식과 각종 장신구에서도 쁘족 미술과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인체의 굴곡이나 양감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데 그다지 관심이 없다. 반면 쁘 왕국의 미술은 버마족보다 인도 미술의 영향을 강하게 반영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연구되지 않았고, 일률적으로 남인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 지방 미술의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만 있었다. 하지만 쁘 미술의 다양성은 남인도의 영향만으로 이뤄졌다고 단언하기 어렵게 한다. 본고에서는 쁘족 불교미술의 특징과 다원성, 인도 미술과의 비교를 통해 양식적 연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II. 쁘 왕국의 역사와 스리 크세트라

미얀마 역사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대표적인 종족 가운데 하나인 쁘족은 이미 기원전부터 미얀마 중부 지방에 정착해 있었다.²⁾ 쁘족은 미얀마 중부 지방을 거점으로 몇 개의 소국을 세웠고, 이들을 통치하여

뿌 왕국이라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대륙부 동남아시아 최초의 고대국가로 알려진 푸난(Funan, 扶南)을 제외하면 동남아시아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도시 문명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는 험하기는 하지만 육로를 통해 인도에서 넘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의 다른 종족처럼 인도나 중국 방면에서 남하한 것으로 알려진 뿌족은 오늘날의 미얀마를 대표하는 종족인 버마족과 유사한 말을 썼고, 늦어도 기원후 1세기경에는 에야워디 강 중 상류 지역에 정착해 있었다고 한다. 이 시기부터 점차 영역을 넓히고 발전한 뿌 왕국은 7세기경에는 상당히 번창했다고 추정된다. 프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 비크라마(Vikrama) 왕조가 융성했지만 그 치세는 길지 않았고, 곧 남부 미얀마를 거점으로 살고 있었던 몬(Mon)족의 침략을 받아 위축되었다.³⁾ 미얀마 역사서로 간주되는 『유리궁전 버마 왕 연대기(The Glass Palace Chronicle of the Kings of Burma)』에서는 뿌족이 최초로 미얀마 중부를 지배했던 따가웅(Tagauung)족의 후예라고 말한다(Thein Lwin, Win Kyaing and Janice Stargardt 2014).⁴⁾ 동남아의 고대에 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중국의 사서 중 후한의 역사를 다룬 『후한서(後漢書)』에는 “탄국(掸國)에서 후한의 화제(和帝)에게 봉물을 보냈다”는 기록이 나온다(동북아역사재단 2009). 이는 중국 사서에 나오는 가장 이른 시기의 미얀마에 대한 언급이며 여기서 말하는 탄국은 지금의 미얀마 북부 지역에 있었다고 추정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탄국은 뿌와 발음이 다르지만 뿌족이 스스로 자신들을 부르던 띠

2) 이보다 후대에 미얀마 남부에 자리 잡은 민족은 이들을 띠르쿨(Tiecul)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뿌족이 자신들 스스로를 지칭하는 이름이었다.

3) 민족의 침략으로 멸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전부터 계속된 南詔와의 마찰이 뿌 왕국을 쇠약하게 만든 결정적 계기였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기록은 『蠻書』를 들 수 있으며 832년 남조의 뿌 침공으로 뿌족 3000명 이상이 운남으로 끌려갔다고 전한다.

4) 그러나 근대기에 쓰인 문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Translated by Pe Maung Tin and G. H. Luce 1960, 6).

르쿨(Tircul)이라는 이름이나 따가웅에서 온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⁵⁾ 다음으로는 4세기에 쓰인 상거(常璩)의 『화양국지(華陽國志)』를 들 수 있다. 『후한서』에서 탄국이라 쓴 것과 달리 『화양국지』에서는 표월(漂越)이라고 썼는데 이는 쁘 왕국을 중국어로 ‘표’로 음역한 것으로 여겨지며, 이는 쁘 왕국을 거론한 가장 이른 시기의 중국 기록이다.⁶⁾ 후대의 ‘표’국과 한자 표기는 다르지만 표월은 쁘라는 이민족(월(越))이라는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중부 미얀마 여러 지역에서 정치, 문화적 공동체를 형성한 몇 개의 소국으로 이뤄진 쁘 왕국은 오늘날의 스리 크세트라(Śrī Kṣetra), 베익타노(Beikthano), 할린(Halin) 등 세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삼았고, 현지에는 현재 쁘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이 남아있다. 이 세 유적에서 이루어진 발굴 조사로 고대 쁘 왕국의 문화와 미술 일부가 알려졌다. 그에 따르면 쁘족은 관개시설을 만들어 벼농사를 했고, 중국 및 인도와 활발하게 교역했다. 북으로는 중국 운남 지역으로, 남으로는 미얀마의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하고 있었던 몬족과도 교류를 했으며 인도와의 교역도 잦았다. 쁘는 중국 운남성 대리에 있었던 나라 남조(南詔)와의 계속 이어진 마찰로 쇠퇴를 거듭하던 중에 버마족의 팽창으로 인해 더 이상 왕국을 지탱하지 못하게 되었고, 쁘 왕국은 역사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그들이 남긴 불교문화, 건축, 문자 유산은 버마족에게로 계승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베익타노에서 북쪽에 위치한 바간에서 쁘족의 문자가 쓰인 여러 종류의 명문들이 다량 발견되고 쁘족이 만들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작한 벽돌이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쁘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쁘 왕국의 멸망 이후, 자연스럽게 버마족에

5) 탄은 따가웅, 혹은 따웅의 음역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쁘와 따가웅은 같은 종족을 가리키는 명칭이지만 특이하게도 쁘족이 자신들은 따가웅의 후예라 믿었기 때문에 따가웅이라 불렀다고 한다.

6) 『華陽國志』 卷4

동화되어 바간 왕국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다고 보고 있다(Thein Lwin, Win Kyaing and Janice Stargardt 2014). 할린과 베익타노에서 발굴된 유적들은 뿌족이 관개와 도성 축조의 기술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려 주었지만 이들 지역에서는 스투파 유구와 불교식 매장유구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스리 크세트라에서 발견된 불교미술에 비견되는 불교 조각이나 공예가 발견되지 않았다.

위에서 언급한 주요 지역에서의 발굴을 통해 뿌족이 세운 고대 도시는 약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후 9세기까지 거의 천 년에 이르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고 발전되었음을 알게 되었다(Ministry of Culture 2013). 이 도시들은 거대한 해자를 두른 성벽과 성문을 갖춘 곳이라서 뿌족은 그 문명의 첫 단계부터 일찍이 도시를 형성했음이 밝혀졌다. 또 세 곳 모두 건조한 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개시설을 했고, 성 내에 스투파와 승원, 독특한 층단식 분묘 유적을 건축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발굴된 유적의 규모로 볼 때,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 정도의 막강한 권력이 배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왕국의 백성들은 대개 성 안에 거주했음도 알게 되었다. 성벽과 불탑들은 북부·중부 인도의 경우처럼 벽돌을 쌓아 만들었다. 또 발굴된 자료 가운데 봉헌판과 명문들은 인도 산스크리트 표기법 중 하나인 브라후미(Brahmi) 문자에서 파생된 뿌족 고유의 문자가 있었음을 알려주었다. 인도에서 발견되는 굽타시대까지의 문자들 중에는 브라후미가 다수인 것으로 미루어 이른 시기의 인도 표기법이 일찍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뿌족의 문자는 더러 해독이 됐지만 아직까지 뿌족의 언어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스리 크세트라에서는 뿌족 문자 외에도 산스크리트어, 팔리어로 쓰인 명문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성과 벽돌 건축법, 문자로 보았을 때, 뿌족은 종교와 문자, 건축을 포함한 인도 문명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문화를 발전시켰음을 알 수 있다.

동남아의 역사시대가 인도화로 인해 시작됐다는 조르쥬 세데스(George Coedes)의 지적대로 인도 이주민들의 동남아 대거 이주로 인한 문명의 변화는 기원 전후에 이미 감지되며, 미얀마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문자와 종교가 미친 영향은 막대했고 이는 현지인들의 생활방식과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어디라고 비정하기 어려우나 수바르나부미(Suvarnabhūmi, 황금의 땅)로 불리는 곳에 처음 인도에서 상인과 사절단들이 불교를 가져온 이후, 불교는 특히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가 되었다.⁷⁾ 대표적인 미얀마의 초기 불교 유적이 뷁족의 도시 스리 크세트라와 남부의 타통(Thaton)이다. 문족이 세운 고대 국가의 거점이었던 타통은 미얀마 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남인도, 스리랑카와의 교역이 활발했고, 불교미술 역시 그 영향을 크게 받았다. 동남아에서 불교의 기원과 융성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 현지 유물은 대략 4-5세기경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얀마 역시 마찬가지이다. 뷁 왕국의 스리 크세트라에서도 역시 늦어도 5세기에는 불교를 국교로 삼았고, 이는 동남아에서 불교를 수용한 최초기 국가로 추정된다(Guy 2014a).

뷔 왕국 도시 유적 가운데 가장 넓고 보존 상태가 좋은 곳이기도 하지만 스리 크세트라가 할린과 베익타노를 지배했다는 증거는 없다. 스리 크세트라의 전성기는 5-8세기로 이때 문명이 정점에 달했다가 9세기에 쇠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장은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서 벵갈 북동쪽으로 큰 바다 옆에 실리차달라(室利差咀羅)국이 있다고 썼는데 이 실리차달라국이 스리 크세트라를 음역한 이름으로 추정된다.⁸⁾ 또 『구당서(舊唐書)』, 『신당서(新唐書)』에도 800년, 801년에 걸쳐 두

7) 동남아 불교국가 모든 지역에서 수완나부미가 각자 자기들의 땅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교종주국으로서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서 명확하게 수완나부미가 어디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나 인도에서 가까운 지역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완나부미의 신화와 현대적 활용에 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Revire 2018).

8) 『大唐西域記』 卷十

건의 기사가 나오는데, 35명의 악공과 함께 뽀의 마하라자(Maha Raja)인 용창(Yungchyang)이 당시 슈리(Śri)를 다스리고 있었던 자신의 동생 슈난토(Shunanto)를 사신으로 보냈다는 내용이다. 슈리는 스리 크세트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는 뽀를 그대로 음역하여 “표국(驃國)”이라고 지칭했는데, 당시 표국의 속국이 18개였다고 기록한 것으로 미뤄볼 때, 당시의 표국은 아마도 부족국가 형태의 국가 연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는 표국의 악공과 음악, 무용에 대한 찬사와 감탄이 보인다. 당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신기한 가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Kang Heejung 2015).⁹⁾ 실제 무용과 음악 연주를 볼 수는 없지만 “표국의 무용”이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유물이 있다. 스리 크세트라의 3대탑 가운데 하나인 파야마(Payama) 스투파와 근처에서 발굴된 5기의 소형 청동인물상이다(도 1).¹⁰⁾ 높이가 11cm에 불과한 이 소형인물상들은 저마다 다른 자세로 악기를 연주하며 춤을 추고 있다. 상반신은 나형이고, 짧은 치마를 입었으며 목걸이와 귀걸이 등의 장신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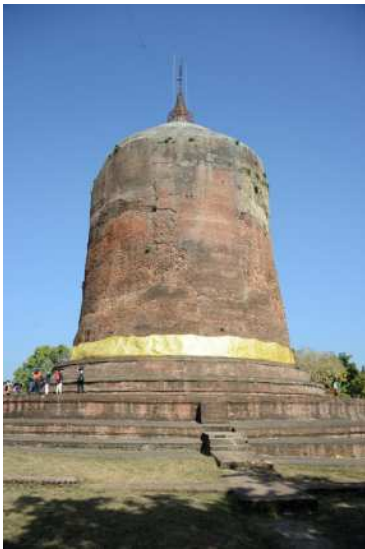


도 1. 청동 인물상, 6-7C, 양곤 국립박물관(Guy 2014,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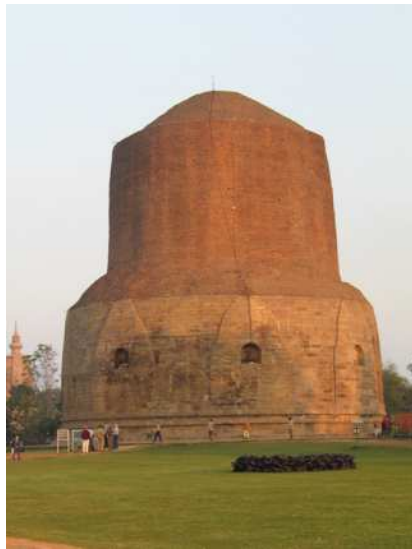
- 9) 이전의 중국 기록과 달리 여기서는 이 지역을 곤륜이라고 지칭한 부분이 나와서 주목된다.
- 10) 가장 중요한 세 기의 스투파는 보보지 스투파, 파야마 스투파, 파야지(Payagy) 스투파이며 그중 파야마 스투파 인근에서 1966-1967년경에 발견된 동제 종 내부에서 이들 인물상들이 발견되었다.

비록 소형이지만 울동감 있는 자유로운 자세와 연주하는 순간을 잡아 낸 듯한 포착력이 뛰어나다.

스리 크세트라라는 1912-1913년과 1939-1949년 크게 두 번에 걸쳐 대대적인 발굴이 이뤄졌고, 이로 인해 쁘 왕국 역사와 문화의 실체가 일부 밝혀졌다. 에야워디 강 인근이기는 하지만 미얀마에서도 비교적 건조한 곳에 위치한 까닭에 스리 크세트라라는 다른 동남아 대륙부 건조지대에 자리 잡은 나라와 유사하게 농업용 관개시설 확충에 힘을 기울였다. 쁘족은 관개시설 건설을 위한 벽돌 생산에 집중했으며, 벽돌을 이용해 관개시설은 물론이고 불교 사원과 스투파, 기타 건물을 지었다. 도시국가 스리 크세트라라 성곽을 둘러싸고 네 곳에 각각 거대한 스투파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세 곳이 현재 개축되었다. 스리 크세트라라 쁘족 건축을 대표하는 것은 보보지(Bawbawgyi) 스투파이다(도 2). 보보지 스투파는 원통을 뒤집어서 세운 듯이 위로 높이 솟은 복발 윗부분



도 2. 보보지 스투파, 쁘시대, 스리 크세트라 (사진: 주수완)



도 3. 다메크 스투파, 굽타시대, 인도, 사르나트 (사진: 필자)

에 금속제 상륜을 올린 복발식탑(覆鉢式塔) 형식을 따랐다. 미얀마 바간은 물론이고 동남아의 다른 지역에 건설된 분묘 형식의 탑과는 달리 위로 높이 솟은 원통형의 형식의 탑은 인도 사르나트(Sarnath)에 있는 다메크 스투파(Dhamek Stupa)를 연상시킨다(도 3). 탑의 아랫부분은 다르게 축조했지만 내부를 돌과 흙으로 두텁게 쌓고 벽돌로 외벽을 다시 쌓아올렸다는 점에서 보보지 스투파에 보이는 뿌족의 불탑 형식은 인도 중부 지방 불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른 유물로는 화장한 인골을 담은 용기가 다량 발굴되었다. 토기를 이용하여 화장한 유골을 담은 매장용기는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의 나가르주나 콘다(Nagarjuna Konda)와 베익타노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따라서 화장의 풍습과 매장용기의 이용은 인도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불교 의례와 풍습이 스리 크세트라에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점은 같은 시기 동남아 다른 지역의 장례 풍습과 다른 점이다.

Ⅲ. 스리 크세트라의 불교미술

1. 깐바 마운드와 스리 크세트라의 불상

뿌족의 불교미술은 미얀마에서 연원이 가장 오래된 미술 가운데 하나이다. 뿌족은 자신들의 문명 초기부터 불교미술을 만들었다. 사원지는 발굴되지 않았지만 불교미술의 양상은 다양해서 스투파는 물론 사리기와 불상, 공예품이 모두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불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뿌족 시대의 불상 역시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린 가부좌로 앉은 좌상이 대부분이며, 결가부좌상은 아직까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불상의 법의는 통견과 편단우견이 모두 나타나고 있어서 착

의법에 따라서 특별히 인도 어느 지역의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통견이나 편단우견이나 옷을 입는 방식에 관계없이 법의는 매우 얇게 처리되어 신체의 굴곡을 그대로 전달하며, 옷 주름은 거의 묘사되지 않은 것이 뷁족 조각의 일반적인 특징이다. 불상의 머리에는 나발이 표현되었고, 정수리에는 명확하게 육계가 있다. 조각의 재료는 테라코타와 청동을 썼으며 청동제품의 경우, 대개 얇은 두께의 주물로 만들었는데 은과 주석의 함량이 높다.

1926-1927년 스리 크세트라 도성 남쪽의 모자(Hmawza) 마을 근처에 있는 우 깐바(U Khin Ba)라는 사람의 농장 안에 있는 불탑 유적이 발견되어 발굴 조사가 행해졌다. ‘깐바 마운드’라고 알려진 이 유적은 뷁 시대의 불탑이 있었던 자리라고 알려졌으며 스리 크세트라에서 유일하게 교란되지 않은 스투파였다. 깐바 발굴은 미얀마 고대 역사유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발굴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탑은 5세기 말-6세기경에 건립된 것으로 추측되며, 1997년도에 이뤄진 연구로 인해 사리함의 연대가 5세기말까지 올라갈 수 있음이 알려졌다 (Thein Lwin, Win Kyaing and Janice Stargardt 2014). 마운드 안쪽에서는 이 시기 범인도불교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사리장치가 발견되었고, 탑지 안쪽에 있는 사리공에서는 순금으로 만든 금제 경판 20매, 45매의 은화, 은제 사리함 및 각종 불상들을 포함하여 약 500여 점의 유물이 수습되었다. 금제 경판은 야자나무 잎으로 만든 패엽경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며 지금까지 발견된 것 가운데 가장 긴 팔리어 경전의 발췌본이다. 5세기 초의 팔리어 문법에 정통한 승려들이 작성한 구문으로 이들은 4세기 중엽 이후 팔리어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 뷁족 승려들이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Andhra Pradesh)에서 공부를 했으리라고 추정되었다.¹¹⁾

11) 팔리에 가까운 프라크릿(Prakrit)이나 팔리 텍스트는 인도와 태국에서 발견된 바 있지만 이 금제경전만큼 중요한 이른 시기의 팔리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다(Thein Lwin, Win Kyaing and Janice Stargardt 2014, 67).



도 4. 석판, 뿌시대, 깃바 출토, 스리 크세
트라 고고학박물관(Guy 2014, 79).

도 5. 사리외함, 5세기, 양곤국립
박물관(Guy 2014, 66).

사리함이 있었던 공간은 낮은 부조로 스투파를 새긴 석판으로 덮여 있었다(도 4). 높이 162cm에 이르는 사삼제 석판은 벽돌로 쌓은 사리공을 덮었던 것으로 1926년 발굴 당시 수습되었으나 석판이 처음 사리공을 만들 때의 것인지, 후대에 이를 보수할 때 교체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¹²⁾ 석판 앞면에 낮은 부조로 묘사된 스투파는 폭이 좁고 높아 산치 스투파 형태의 봉분형 스투파보다는 보보지 스투파처럼 포탄형에 가깝고, 이 형태가 뿌족의 일반적인 스투파 형식임을 시사한다. 석판은 전체적으로 좌우대칭에 가까우며 스투파 위로는 5단의 산개와 불번(佛幡)이 표현되었으며, 불번 아래로는 두 명의 인물이 산(傘)을 들고 있으나 형상이 뭉개져서 그 존명을 비정하기 어렵다. 주목되는 것은 스투파 하단 감실에 안치된 5구의 불상이다. 5구 불상의 형상은 동일하며 얼굴과 수인 등 세부적인 모습은 마모로 인해 명확하지 않지만

12) 사리기와 공반한 7세기, 8세기의 은화들은 이 사리공이 건립 이후 적어도 1번 이상 개봉되었음을 의미한다. (Guy 2014, 78-79).

육계와 나발, 선정인은 분명하게 보인다.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며 팔다리가 긴 모습은 굽타시대 사르나트나 날란다의 불상을 연상시키지만 법의의 형식과 옷 주름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¹³⁾ 다만 탑신이 저 부조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감실 형태를 깊이 파서 불상이 도드라져 보이는 점, 불신의 비례 및 자세가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 시기 ㄷ의 조각이 어느 정도 정형화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깁바 마운드에서 발굴된 유물 가운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은제 사리함으로 불탑 유적 중앙의 사리공에서 금제경판과 함께 발견됐다(도 5). 이 사리함은 얇은 은판만 남아서 지금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수습 당시 주변에서 발견된 파편으로 미루어 볼 때 원래는 은 원통형 함 위에 보리수 형상의 조형물을 세웠던 것으로 보인다. 두께 약 2mm 정도의 은판을 타출기법(repoussé)으로 만든 이 사리함은 밑판이 없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의 목재 사리함 위에 뚜껑처럼 덧씌우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함 외벽에는 4구의 불상과 4명의 제자가 낮게 부조되었고, 불신(佛身)에 금을 입힌 흔적이 잘 남아있다. 크기는 다르지만 원통형의 몸체에 불상과 다른 조각상을 돌아가며 새긴 것은 중국 사천성 성도 만불사지(萬佛寺址)에서도 발굴된 바 있다. 탑이나 사면비가 아닌 원통형의 조각은 중국에서 유례가 드문 것이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를 주목해왔으나 인도에는 이와 유사한 조각이 없었다. 따라서 원통 위에 불상과 승려상을 번갈아 조각한 형태의 연원을 알기 어려웠다. 그런데 원통형 조각과 깁바의 사리함과의 유사성을 보면 운남 지방을 통해 중국으로 향하는 교통로, 즉 중국 사천-운남-미얀마-인도 간의 교류가 가능했으리라고 상정할 수

13) 이 패널 부조를 나가르주나 콘다와 연결하는 견해도 있으나 스투파의 형태가 나가르주나 콘다의 유형과 차이가 나고, 불상들이 훨씬 날렵한 편이라서 오히려 사르나트 쪽에 가깝다고 생각한다(Guy 2014, 79-80). 여기서 2012-2013년의 발굴로 인해 스투파 내부 방사형 구조에서 더욱 친연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대부분의 인도 스투파가 같은 유형으로 축조되었음을 감안해야 한다.



도 6. 카니쉬카 사리함, 2세기, 인도, 영국박물관

있다. 이러한 교역로를 통해 원통형 몸체의 깃바 사리함과 같은 조각도 가능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사리함은 조각의 양식적인 면이나 도상 등에서 분명히 인도, 특히 굽타시대 안드라 프라데시 지역 미술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도에는 현재 굽타시대 이후의 원통형 조각과 유사한 선행예가 없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통형의 사리함은 인도에서 비마란 사리기나 카니쉬카 사리기까지 기원이 올라가지만

이후 인도에서는 원통형 사리함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다(도 6).

깃바 마운드에서 발견된 금제경관처럼 깃바 사리함의 뚜껑 둘레와 하단부, 부조 제자상 발아래에도 명문이 있다(Stargardt 2018). 사리함 뚜껑 테두리에 새겨진 명문은 뽀 문자와 팔리 문자를 섞어서 기록했고, 하단부의 명문은 뽀 문자와 산스크리트 문자가 혼재하고 있어서 사리함을 만들고 명문을 새긴 이들이 인도에서 전해진 여러 종류의 문자를 읽고 쓰는데 능통했음을 알려준다. 샤를 드루와젤(Charles Duroiselle)이 판독한 바에 따르면 명문에는 코나가마나(Konagamana, 구나함불), 카쿠산다(Kakusandha, 구류손불), 카샤파(Kassapa, 가섭불), 고타마(Gotama, 석가불)의 4가지 이름이 새겨졌다. 따라서 사리함 외벽에 새겨진 4구의 불상은 석가모니를 포함한 과거 4불임이 밝혀졌다. 제자상은 각 조각의 발밑에 가섭, 목건련, 사리불, 아난다라는 이름이 쓰였고, 마멸과 파손이 심한 사리함 하단부에서는 ‘스리 프라부바르만(Śrī Prabhavarman)’과 ‘스리 프라부데비(Śrī Prabhudevī)’라는 2명의 왕실

인명만 판독되었다. 이 두 명은 부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아버지와 딸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서로 간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새겨진 명문의 서체와 부조된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근거로 이 사리함이 430-470년대 굽타양식의 영향을 받아 제작됐지만 거기에 안드라와 스리랑카 불상 양식의 영향이 더해졌다고 보기도 한다(Stargardt 2018). 그러나 인도의 안드라 지역 나가르주나 콘다(Nagarjuna Konda)에서 출토되는 이보다 앞선 시기의 불상들은 법의에 촘촘하게 옷 주름을 새긴 것이 특징인 반면, 이 사리함의 불상에는 옷 주름이 전혀 표현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사리함 부조의 불상은 양식적으로 안드라 지역의 조각보다 오히려 사르나트나 날란다의 불상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형식에 있어서는 스리랑카의 불좌상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양감이 강조되어 신체 표현은 마투라 조각에 더 가까울 뿐만 아니라 수인 역시 전혀 다르다. 게다가 스리랑카의 불좌상은 대부분 두 손을 다리 위에 올려 선정인을 하고 있어서 상좌부 불교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

깬바 마운드에서 은제 사리함을 포함한 유물과 함께 테라코타 부조상도 출토되었다(도 7). 인도, 티벳, 동남아 각지에서 발견되는 봉헌판(votive tablet)처럼 생긴 이 부조는 탑의 동남쪽 부분에서 발굴되었는데, 여러 조각으로 깨진 것을 맞춰서 복원한 것이다. 액자처럼 생긴 사각 틀 안에 의자에 앉은 모습의 의좌상(倚坐像)과 좌우 협시가 묘사되었다. 1930년에 드루와젤이 처음 깬바 유물을 발굴하고, 그에 관한 연구를 출판했을 때, 그는 이 조각의 도상을 무



도 7. 테라코타 부조상. 불교 시대. 깬바 출토. 스리 크세트라 고고학박물관. (사진: 위순선)

가파카(Mughapakkha) 자타카(Jataka, 本生)로 비정한 바 있다(Duroiselle, 1930, 173). 무가파카 자타카는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10개의 대 자타카 중 하나에 속하는 것으로서 때로는 테미야(Temiya) 자타카라고도 불린다. 이 이야기는 아이가 없는 카시(Kāśī)국 왕을 위해 테미야 왕자가 그의 아들 노릇을 한다는 내용이다. 카시국은 오늘날 인도의 사르나트(Sarnath)에 있었던 나라이다(강희정 2004). 하지만 이 조각을 테미야 자타카라고 비정할 만한 근거는 부족해 보이며, 현재 미얀마 현지에서는 싯다르타 태자상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의 인물은 왼편 얼굴 절반과 귀 부분이 떨어져나가 원래 모습을 알기 어려우나 머리에 높은 터번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테미야 왕자, 혹은 싯다르타 태자상으로 생각된다. 원래 크고 둥근 귀걸이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왼팔에도 완천(腕釧)이 묘사되어 장신구를 한 것이 확인된다. 상반신은 나형인데 인체의 양감이 강하지는 않지만 가슴이 살짝 융기되었으며 군의(裙衣)를 걸치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다. 흥미롭게도 선각을 이용해 눈썹을 활처럼 높게 나타냈고, 정면을 응시하는 눈동자를 표현했다. 이러한 조각의 양식적 특징은 인도 북부 지역의 미술과 유사성이 있다. 더욱이 테라코타 외면에 광택을 높이기 위해 마연을 한 흔적이 보이는 것도 마우리아 왕조 이래 지속된 인도 불교미술과의 친연성을 잘 보여준다.

깁바에서 소형 은제 봉헌탑과 함께 발굴된 단독 불상은 9.5cm에 불과하지만 은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도 8).¹⁴⁾ 은제불상 자체가 매우 희귀할뿐더러 인도나 여타 동남아 지역에서도 6세기까지 올라가는 은제 불상은 찾아보기 어렵다. 작은 상이지만 이목구비와 신체 표현이 뚜렷하게 특징을 보여준다. 크게 뜬 눈에는 눈동자까지 선각으로 새겼고, 입가를 눌러서 일종의 고졸미소(archaic smile)를 보여준다. 육계는 납작하지만 나발은 오른쪽으로 말린 입자 하나 하나가 또렷하게 묘사됐

14) 은제 봉헌탑은 사리공을 덮었던 석판에 묘사된 스투파와 비슷한 형태이며 찰주가 철제로 되어있다.

다. 오른손으로 여원인을 했고 왼손은 다리 위에 올려 활짝 뜬 눈과 함께 인도 마투라 불상의 오랜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착의법과 양식적인 특징은 다르지만 나발 표현법, 눈동자가 묘사된 눈, 손바닥의 법륜(法輪), 상체보다 빈약한 다리에서 양자간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동그란 얼굴, 편단우견의 법의와 옷 주름이 전혀 묘사되지 않은 점, 결가부좌 대신 두 다리를 풀어서 앉은 좌세, 목의 삼도(三道), 아무 부조나 장식이 없는 대좌에서 이 시기 뷁족 미술이 갖는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도 8. 은제불상, 6C, 깬바 출토, 양곤국립박물관 (Guy 2014, 84).

은제불상보다 약 2.5배가량 더 크지만 이와 비슷한 불상이 한 구 더 깬바에서 출토되었다. 전체적으로 은제불상과 유사하지만 등받이가 있는 대좌 위에 앉은 모습이라는 데 차이가 있다. 베트남 남부 옥 에오(Oc Eo)나 중부 참파(Champa) 지역에서 발견되는 동남아시아의 이른 시기 불상 대좌가 중대(中臺) 없이 양련과 복련으로 구성된 것과 달리 이 불상은 평면 사각뿔 형태를 위아래로 맞붙여 놓은 모습이며, 이는 굽타시대 인도 조각에서 볼 수 있는 대좌 형태이다. 또 역삼각형 형태의 등받이에 조각된 입이 큰 짐승은 마카라(Makara)로 이 역시 굽타시대 불상의 등받이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장식이다. 따라서 미얀마의 이 불상은 굽타시대 이후 인도 불상의 특징과 날란다 불상 양식, 그리고 뷁족의 전통 조각양식을 모두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깬바에서 발견된 두 구의 불상은 푸난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 대륙부의 불상과는 대

좌 형식, 얼굴 묘사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얀마 중부와 캄보디아, 베트남의 불교문화 교류의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것을 시사한다.



도 9. 석조불좌상, 뽀시대, 스리 크세트라 고고학박물관(사진: 주수완).

불상과 의례용품에서 볼 수 있는 뽀족의 예술 전통은 남부 인도의 양식을 빠르게 흡수하고 북부 및 동부인도, 그리고 몬족으로부터 받은 양식적 영향을 급진적으로 변용시켰다고 평가된다(Guy 2014b). 하지만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뽀족 불상은 오른쪽 다리를 편하게 왼쪽 다리 위에 올린 자세로 앉

아 있어서 두 다리를 결가부좌로 만든 인도의 불상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좌상의 앞음새가 불상 제작 초기부터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예가 보보지 스투파 남쪽에서 발견되었다(도 9).¹⁵⁾ 이 불상은 사각형 대좌 위에 오른발을 위로 올리고 왼발을 그 아래로 편히 내려둔 채 선정인을 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목 윗부분은 남아있지 않다. 대좌에는 스리 크세트라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가장 긴 산스크리트어 명문이 새겨져 있다(Guy 2014). 이 지역의 뽀족이 만들어 썼던 문자는 남인도의 팔라바(Pallava) 문자와 안드라 프라데쉬의 살란카야나(Salankayana) 문자를 독특하게 변형시킨 것이다. 불상 대좌 4면에 새긴 장문의 명문에는 자야찬드라바르만(Jayachandrarvarman)과 하리비크라마(Harivikrama) 라는 이름이 나온다. 하리비크라마는 스리 크세트라를 세운 왕으로 추정되는데, ‘비크라마’라는 접미어는 뽀 왕조의 왕실 성씨로 알려져 있다.

15) 1926-1927년 Kan Wet Khaung Gon 에서 인도고고국(Archeological Survey of India)에 의해 발굴됐다.

그러므로 쁘 왕가의 역사를 기록한 문서는 없지만 명문에 포함된 이름으로 인해 불상이 쁘 왕실에서 발원한 6세기 불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 명문은 북인도에서 주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쁘족이 문화적으로 남인도나 스리랑카의 영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 불상은 균형 잡힌 신체에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며 팔다리가 날씬하다. 두 다리의 폭은 넓어서 안정감 있는 좌세를 보여주지만 다리가 매우 빈약한 점은 앞에서 본 깎바 출토 불상과 같다. 가는 다리에 비해 두 손과 발을 두툼하게 처리한 점이 이채롭다. 편단우견(偏袒右肩)으로 법의를 입었는데 옷 주름은 표현되지 않았고 마투라나 사르나트의 불상처럼 허리에 띠를 묶은 줄이 표현되었다. 이 불상은 흔히 스리랑카의 불상과 양식적으로 비교되며, 그 근거는 신체 비례와 두 다리를 편안하게 둔 앉음새, 편단우견 법의와 선정인이다. 그에 따르면 이 사암제 불상은 편단우견 불좌상 유형이 스리랑카를 통해 미얀마로 유입되었음을 시사한다고 한다(Guy 2014). 하지만 쁘족의 불상이 스리랑카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다. 사르나트의 불상처럼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마연한 흔적이 아직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불상을 조각한 방식도 사르나트의 조각과 같다. 사르나트의 설법인 불좌상처럼 좌상을 조각하기에는 폭이 좁은 석재를 사용한 까닭에 앉아있는 무릎과 둔부보다 신체 상부를 약간 위로 세워 조각하는 방식을 통해 정면에서 볼 때의 신체 균형을 맞추려고 했다(도 10).



도 10. 불좌상, 6C, 아바야기리, 스리랑카(사진: 필자)

석재 옆면이 좁은 판재를 사용하는 방식도 인도의 굽타시대 사르나트 불상 조각수법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7세기 이후 뿌족의 불교미술은 더욱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의 사타바하나(Sātavāhana) 왕조와 익크슈바쿠(Ikṣvāku) 왕조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제작된 미얀마 뿌족의 불상 중에 편년이 되는 확실한 예가 많지 않고 그나마 안드라 프라데시의 불상과는 차이를 보인다.

2. 뿌족의 봉헌용 불상

인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미얀마에서도 인도처럼 매우 많은 봉헌판을 만들었다. 봉헌판은 진흙을 이용해 불상이나 보살상의 형상을 틀로 찍어 만든 것이다. 만들기도 쉽고, 값싼 재료를 이용하여 불교신도들이 쉽게 바침으로써 자신들의 선업과 공덕을 쌓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봉헌판이다. 대부분 하나의 틀[范]로 찍어 십여 개에서 수백 개까지도 제작이 가능하다. 가장 대표적인 봉헌판 다량 제작의 사례는 바간 왕조의 아노야타(Anawrahta) 왕의 봉헌판이다(Strachan 1989, 33). 봉헌판은 누구나 적은 비용으로 쉽게 구하고 바로 봉헌이 가능한 물품이다. 그러므로, 인도에서 성지 순례를 하고, 돌아갈 때 승려나 불교 신자들이 현지에서 직접 봉헌판을 사가지고 돌아갈 수 있었고, 이로써 봉헌판의 생산과 유통이 본격화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인도나 스리랑카에서 봉헌판으로 공덕을 쌓는 신앙 행위가 미얀마에도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제작의 용이성, 값싼 재료의 사용, 운반과 이동의 간편성은 미얀마 불교권에서 봉헌판을 바치는 일도 보편적으로 만들었고, 이에 따라 스리 크세트라를 비롯한 미얀마 여러 유적에서는 무수한 봉헌판이 발굴되고 있다(강희정 2014). 한편 봉헌판의 경우 남인도에서 발견되는 사례가 적다는 점도 유의할 만하다. 이 점은 뿌 왕국의 미술이 남인도와 스리랑카의 막대한 영향을 받았다는 기존의 이론과도 차이가

있다. 인도에서 봉헌판은 주로 성지 순례와 깊이 관련되어 있었다.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봉헌판은 석가모니의 8대 성지를 중심으로 제작되고 봉헌되었기 때문에 남인도보다는 성지가 집중된 중부 인도에서 많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봉헌판을 통해 선업을 쌓는 신앙행위 역시 중부 인도 8대 성지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것이 미얀마에서 성지라는 맥락 대신 봉헌판을 바치고 공덕을 쌓는 신앙의 표현으로 남았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전해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얀마에서도 바로 봉헌판을 만들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뷁 시대의 유적에서 벽돌을 이용해 스투파를 건설하거나 건물을 세웠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진흙을 이용해 불교 건축과 각종 불교 조형물들을 만드는 방식은 일찍부터 인도에서 전해졌다. 현재 남아있는 봉헌판 가운데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바간 시대의 예들이지만, 뷁 시대나 몬 시대의 유적에서도 적지 않은 봉헌판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목을 끈다. 미얀마의 고대 봉헌판들은 인도, 특히 보드가야(Bodhgaya)의 마하보디(Maha Bodhi) 사원에서 발굴된 봉헌판과 유사성이 많지만, 차이점도 보인다. 우선 보드가야에서 발견된 봉헌판 가운데 불상이 표현된 예들은 거의 대부분 중앙의 향마촉지인(降魔觸地印) 불좌상이 있고 그 좌우에 열반을 상징하는 스투파가 묘사되어 있다(도 11). 스투파들은 전형적인 모습으로 상륜(相輪)이 높이 솟은 첨탑형으로 초기에는 2기, 나중에는 여러 기가 한꺼번에 나타난다. 스



도 11. 봉헌판, 7C, 보드가야 발견, 인도, 보드가야 박물관 (사진: 필자)

리 크세트라에서 발굴된 봉헌판에도 역시 중앙에 불좌상이 있고 좌우에 2기의 스투파가 있는데 중앙의 복발(覆鉢) 부분이 아래가 좁고 길쭉한 원통형으로 스투파의 형태가 마치 보보지 탑처럼 높게 표현되었다(도 12). 뿌족의 스투파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새긴 것은 미얀마, 특히 뿌 시대 봉헌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도 12. 봉헌판, 뿌시대, 스리 크세트라 고고학박물관 (사진: 필자)



도 13. 봉헌판, 뿌시대, 스리 크세트라 고고학박물관 (사진: 필자)

뿌 시대 6세기의 봉헌판이 지닌 또 다른 특징은 중앙의 불상이 크다는 점과 축지인 이외의 수인(手印)을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심지어 스투파 대신 두 개의 태양을 불상의 두부 양 옆에 나타내는가 하면, 불상의 대좌에 등받이가 있는 굽타식 의자형 조형을 보여주기도 한다(도 13). 봉헌판의 불상은 어깨가 넓고 허리가 가늘며 배꼽이 분명하게 보인다. 불상의 신체가 다른 조형물보다 높

은 부조로 새겨져서 편단우견의 법의를 입었으나 마모로 인해 옷의 윤곽은 잘 보이지 않는다. 뷁 봉헌판의 수인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는 것은 두 손을 앞으로 모아 설법인(說法印)을 한 것으로, 이는 사르나트에서의 첫 번째 설법을 상징하는 수인이자 승가(僧伽)의 성립을 암시하는 수인이다. 인도의 봉헌판에서는 그다지 많이 보이지 않는 수인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독립상으로 제작된 미얀마의 일반적인 불좌상이 오른발을 위로 올리고 왼발을 아래에 두는 특유의 자세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6세기 봉헌판에 새긴 뷁족의 불상은 인도와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명백한 결가부좌를 한 모습으로 조각되었다.

7세기 이후 뷁족의 봉헌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우선 질적으로 흙의 상태가 거칠어서 표면에 그 흔적이 다 드러난다. 전반적으로 크기가 큰 예가 늘어나고 윗부분을 둥글게 다듬은 사각형의 봉헌판이 늘어난다. 역시 스리 크세트라에서 2001년에 수습된 이 봉헌판은 7세기부터 8세기에 걸쳐 제작된 예들이다(도 14). 탑은 보이지 않고 대좌와 광배를 갖춘 편단우견의 불좌상이 낮게 새겨진 전불 형태이다.¹⁶⁾ 육계는 높아졌고 나발은 이 시기의 다른 불상처럼 작아졌으며 얼굴은 평면적이고 신체 또한 양감



도 14. 봉헌판, 8세기, 스리 크세트라 고고학박물관 (사진: 필자)

16) 모자의 마이니파웅(Myaynitaung)에서 수습됐으며 벽돌처럼 불에 구웠다.

이 줄었다. 대부분 편단우견으로 범의를 입고 있다. 한편 불상의 대좌와 등받이, 광배는 포스트 굽타시대 인도 불상과의 유사성을 보여주는 예와 동아시아의 불상처럼 화염문이 있는 이중 광배를 갖춘 불상이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러나 소형 불탑이 있던 자리를 두 개의 태양이 차지한 것과 대좌 방식 및 불상 받침대에 새겨진 장식 문양들은 인도와 그 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서 미얀마 뿌족이 선호하는 문양으로 대체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뿌 시대 봉헌판의 다양한 모습은 태국을 비롯한 다른 동남아 지역의 봉헌판과도 구별되는 독특한 형태이다. 이는 뿌족이 인도 여러 지방에서 다양한 경로로 전해진 불교미술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자신들의 취향과 불교 이념, 신앙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미술로 재창조했음을 말해준다.

IV. 맺는 말

미얀마는 물론 동남아에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불교를 받아들이고 가장 중요한 종교로 삼았던 뿌 왕국에서 스투파, 불상, 사리함 등 불교미술이 조성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은 비슷한 시기 동남아 대륙부와 도서부 다른 지역에서 힌두교가 좀 더 우세한 위치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점이다. 19세기부터 영국이 시작한 중부 미얀마의 발굴은 스리 크세트라, 베익타노, 할린에서 집중되었고, 뿌족의 고대국가와 그 문화의 실상을 전해주는 역할을 했다. 현지에서 발굴된 자료로 보면 인도 종교의 유입과 함께 산스크리트, 팔리어에 대한 지식, 화장 및 장례 풍습이 미얀마로 전해졌다. 이는 다양한 문자로 표기된 각종 명문과 매장용 뼈항아리의 대거 발굴에서 확인된다. 뿌 문자는 산스크리트 표기 가운데 하나인 브라후미 문자를 변용시켜 만든 경우도 있고, 팔리어와

쁘 문자를 섞어 기록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쁘족의 상류 지식층은 여러 종류의 인도 문자와 쁘 언어 표기를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어느 한 종류의 문자체계가 쁘 왕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문자를 사용한 명문을 불교미술에 남김으로써 자신들의 공덕을 쌓으려는 의도를 명확히 한 점 역시 불교의 선업과 인과율에 대해 쁘족이 잘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음을 알려준다. 한 지역에서 대량의 화장용 매장용기가 발굴됐다는 점에서 인도의 장례와 화장 풍습 역시 이미 쁘 왕국에서 지배적 의식으로 자리 잡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벽돌을 구워 자신들의 성곽과 스투파를 건축한 것은 다른 동남아 지역보다 인도식 건축법에 더 익숙했기 때문이다.

쁘족은 늦어도 4세기경부터 불교미술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힌두교 미술이 주로 발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쁘족의 불교미술이 양적으로 많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양상은 다양하다. 특히 깬바에서 출토된 사리기는 인도의 비마란 사리기의 형식을 계승한 매우 보기 드문 예이다. 더욱이 원통형의 형태를 모방한 데 그치지 않고, 불신(佛身)에 금을 도금하는 방식으로 더욱 돋보이게 만들고, 보리수를 만들어 사리함 위로 올려 쁘족 나름의 창의성을 발휘했다. 쁘 왕국의 불교미술은 남인도 안드라 지방과 스리랑카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 보았듯이 안드라의 불상에 비하면 불신이 훨씬 날렵할뿐더러 착의법과 옷 주름 처리방식에도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확일적으로 인도 안드라에서 스리랑카를 거쳐 미얀마에 전해진 상좌부 불교의 미술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인도 사르나트와 날란다 불교미술의 영향도 받아 쁘족 고유의 문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중부 미얀마는 육로를 통해 방글라데시 방면에서의 이동도 가능하며, 이 시기 인도의 중요한 항구였던 갠지스강 하구 탐라립티(Tamralipti, 旻麻立底)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에야와디강을 따라 북상하는 경로도 가능했다. 스리 크

세트라에서 발견된 뿌족의 불교미술은 처음에 굽타시대 인도 중부 미술의 영향을 받았고, 점차 남부 인도 및 스리랑카 미술도 수용했다. 관음이나 미륵 등의 보살상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으며 불상의 형식과 좌세, 착의법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성격이 드러난다. 편히 앉은 모습의 가부좌, 통견과 편단우견이 모두 나타나는 착의법, 얇은 법의에 옷 주름이 새겨지지 않았다는 점, 다량 발견된 봉헌판 등은 뿌 왕국의 미술이 인도 남부와 스리랑카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았다고 말하기 어렵게 한다. 미얀마 중부에 위치한 뿌 왕국은 인도에서 불교가 발달했던 중요 지역에서 전해진 불교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자신들의 고유 미의식을 반영하여 복합적인 미술을 만들었다.

투 고 일: 2020년 1월 10일

심사완료일: 2020년 2월 16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6일

참고문헌

『舊唐書』

『大唐西域記』

『新唐書』

『華陽國志』

강희정. 2004. “사르나트와 동아시아구법승.” 『미술사와 시각문화』 3: 268-299.

_____. 2014. “-보원사지 오층석탑 사리함의 연기법승(緣起法頌)과 해상 실크로드.” 『미술사와 시각문화』 13: 8-37.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후한서 외국전』 역주. 동북아역사재단.

부산박물관 편. 2019. 『미얀마의 불교미술』. 부산박물관.

Duroiselle, Charles. 1930. "Excavations at Hmawza". *Archeological Survey of India, 1926-1927*. Calcutta: Government of India.

Guy, John. 2014a. "Introducing Early Southeast Asia." in-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_____. 2014b. "Principal Kingdoms of Early Southeast Asia". in-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Kang, Heejung. 2015. "Kunlun and Kunlun Slaves as Buddhists in the Eyes of the Tang Chinese." *KEMANUSIAAN* 22(1).

Luce, G. H. 1985. *Phases of Pre-Pagan Burma: Languages and Histor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urphy, Stephen ed. 2016.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zation Museum.

Murphy, Stephen. 2016. "Cities and Kings: A Journey through the Art and Archeology of Myanmar." Stephen Murphy ed.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zation Museum.

Murphy, Stephen, and Win Kyaing. 2016. "The Pyu: An Ancient Civilization of Upper Myanmar." Stephen Murphy ed. *Cities and Kings: Ancient Treasures from Myanmar*. Singapore: Asian Civilization Museum.

Revire, Nicolas. 2018. "Facts and Fiction: The Myth of Suvannabhumi Through the Thai and Burmese Looking Glass." *TRaNS: Trans - Regional and -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6(2): 167-206.

- Strachan, Paul. 1989. *Imperial Pagan: Art and Architecture of Old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targardt, Janice. 2018. *Relics and Relic Worship in the Early Buddhism: India, Afghanistan, Sri Lanka and Burma*. London: British Museum.
- Thein Lwin, Win Kyaing, and Janice Stargardt. 2014. "The Pyu Civilization of Myanmar and the City of Śrī Kṣetra."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 Translated by Pe Maung Tin and G. H. Luce. 1960. *The Glass Palace Chronicle of the Kings of Burma*.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Wade, Geoff. 2014. "Beyond the Southern Borders: Southeast Asia in Chinese Texts to the Ninth Century." John Guy ed. *Lost Kingdoms; Hindu-Buddhist Sculpture of Early Southeast Asia*.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Abstract

Buddhist Art in Pyu, the Ancient Kingdom of Myanmar, and the Influence of India

KANG Hee Jung
Professor, Sogang University

The Pyu, one of the ancient kingdoms in Central Myanmar, had begun creating the Buddhist Art around the 4th century at the latest. This is in contrast to other regions of continental Southeast Asia where the Hindu Art was dominant. While the Buddhist Art of Pyu illustrates various aspects, the prevailing point of view is that it directly reflects the influence of the Andhra region in the southern region of India, and Sri Lanka. However, compared to those of Andhra's, the body shape is much slimmer, they are dressed differently, and the way of folding clothes are handled differently. It is likely to be the influence of the Buddhist Arts of Sarnath and Nalanda, India. In fact, from Central Myanmar, it was able to travel towards Bangladesh by an overland route, or cross the sea from Tamralipti(耽麻立底), an important port in India, and head north along the Irawady River. The Buddhist Art of the Pyu found in Sri Kshetra was first affected by Central India during the Gupta period, and gradually accepted the arts of Southern India and Sri Lanka later. The Pyu, an ancient kingdom of Central Myanmar, had

created a complex form of Buddhist Art by not only embracing the Buddhist cultures from an important region of India where Buddhism was developed but also applying their aesthetic senses.

Keywords: Central Myanmar, Pyu, Sri Kshetra, Andhra, Sri Lanka